



이 학 영 |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
우리협회 건설분과부위원장
(koreafish@hotmail.com)

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

쉬리: 연애각시 별명가진 물속의 요정

학 명 : *Coreoleuciscus Splendidus* Mori
 지역 방언 : 여울각시, 연애각시, 깔딱피리, 여새, 물까불이,
 여우주둥이 등
 분 류 : 잉어목 모래무지아과
 자생 수역 : 우리나라 거의 전 하천, 한국특산종
 주서식장소 : 물 흐름이 빠른 여울, 하천의 중·상류 자갈과
 바위가 있는 곳
 번 식 기 : 4-5월
 크 기 : 15센티 내외

쉬리는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쉬리속의 담수어이다. 분포지 역이 광범위하여 한강, 금강, 낙동강, 섬진강, 만경강, 삼척오 십천, 울진 왕피천, 영산강, 한탄강 수계 및 거제도에 이르기 까지 동해 북부를 흐르는 하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.

2급수 이상의 맑은 하천과 계곡의 중상류 바위와 자갈이 많고 물 흐름이 빠른 여울을 매우 좋아한다. 최근 조사에는 1급수 수역에 금강모치, 연준모치, 열목어, 어름치 등의 냉 수성 어종들이 살고 있는 심산유곡에 더 많이 발견되고 있 다. 이는 수질오염으로 서식지를 점점 상류지역으로 옮겨가 기 때문이다.

실내 연구수조에서 관찰해 보면 쉬리가 하상구조와 유속, 수질 등에 매우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. 맑은 물에서 사는 갈 겨니, 금강모치, 대륙종개, 꺾지 등은 잘 적응해서 사는 반면, 수조의 환경이 열악하면 견디지 못하고 먼저 쓰러지는 개체 가 많은 것이 쉬리이다. 하천의 생태복원시 가장 까다로운 어 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물고기이다. 여울부와 자갈, 바위 그 리고 빠른 물살, 1급수에 가까운 수질 등을 반드시 조성해 주 어야 하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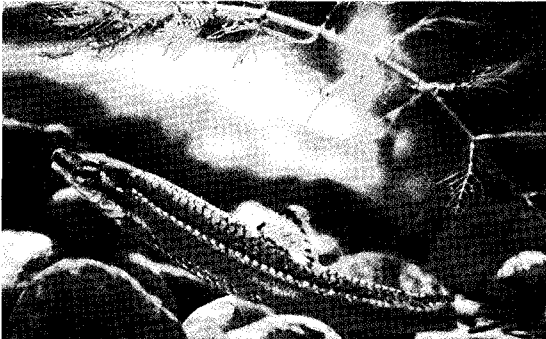
체형은 가늘고 길며 모든 지느러미에 2-3개의 검은 줄무늬 가 있고 체색은 보라색, 황색, 연초록, 진갈색, 은백색 등이 고 루 분포하여 매우 화려하다. 주둥이 끝에서 눈을 통과하여 아가미 덮개까지 검은 띠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. 그 뒤로 몸 중앙으로 황금빛의 영롱한 세로띠가 있다.

쉬리의 아름답고 천진스런 모습은 동화속의 요정 바로 그 것이다. 쉬리라는 순 우리말 물고기 이름도 마치 이야기 나라 의 요정 이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. 5. 6월 번식기에는 더욱 화려한 혼인색을 뽐내며 여울을 따라 몸을 좌우로 춤추 듯 헤엄치는 모습에서 여울피리, 연애각시, 깔딱피리라는 방 언도 가지고 있다. 쉬리는 매우 우수한 관상어이다. 색체에서 어느 열대어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체색 배열 및 전체적 인 콘트라스트는 오히려 이를 따라올 관상어종이 흔치 않다.

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이므로 앞으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개체군을 인공번식을 통해 관상어로 개발한다면 좋은 수출어종이 될 수 있다고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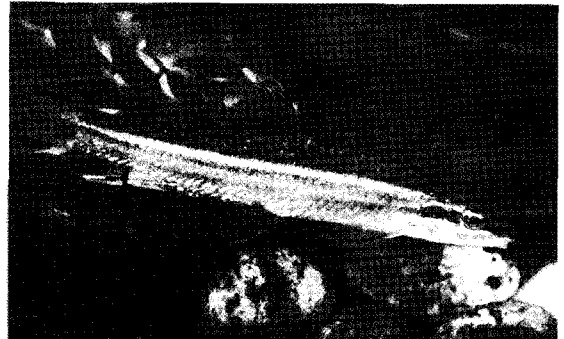
요즈음엔 배스 등 포악한 육식 외래종에 의해서도 그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. 또한 이 물고기가 가진 참 가치를

모르는 인간들이 잡고기 매운탕감으로 남획하고 있다. 이러한 외래종과 남획으로부터 쉬리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. 그 예로 전주천의 쉬리 복원 성공 케이스는 하천과 함께하는 생명문화 창조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.



〈그림 1〉 쉬리

쉬리는 매우 아름다운 한국특산종 물고기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1-2급수의 맑고 물살이 센 수역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환경의 지표종이자 풍지어로 잘 알려져 있다.



〈그림 2〉 번식기의 쉬리

번식기에는 더욱 화려한 색깔을 띠고 갯 채집되어 물가에 나온 쉬리는 금속성을 띤 자태에 무지개가 어른거릴 정도로 예쁜 물고기다.



〈그림 3〉 쉬리의 자생지 금강

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은물결 속에는 수천만 년 이 땅에서 살아온 쉬리들이 오늘도 후손을 이어가느라 바쁜 지느러미 짓을 하고 있다.



〈그림 4〉 야외교육

쉬리만큼이나 예쁜 우리 어린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필자. 대학생을 가르칠 때보다 더 힘들다. 항상 어린이들은 기발한 질문을 해대니 내 입은 언제나 쉬리?